6-8-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시편 90:1-17
말씀제목: **모세를 통하여 몸의 구속의 날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 모세에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본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몸이 구속되어 멀리 날아가게 될 몸의 구속의 날에 대하여 증거하며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시 90:10)**

그는 앞으로 먼 훗날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하늘로 날아가게 하시는 몸의 구속의 날에 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왕도 성령 안에서 몸의 구속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며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음이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음이라.'(시 18:16-19)**

마침내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날아가게 하시어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눅 21:25-28)**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속은 자신의 신부들이 죽음 몸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들려올라가는 휴거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이미 영과 혼이 죽을 몸을 벗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골 2:9-12)**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를 믿어 영과 혼이 구원받는 순간 말씀의 칼에 의하여 구원받은 영과 혼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때부터는 모세가 말한대로 영과 혼이 몸을 떠나 하늘로 날아가는 날만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는 수고와 슬픔만 있는 세상을 떠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것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닫 2:13-14)

사도 바울은 이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소망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살전 5:1-6)

이 세상은 이미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엔은 어젠다 2030 을 만들어 그들이 2030 년까지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그때까지 그들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할 것이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two state solution,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나누어서 일부를 팔레스타인에게 주어 중동평화를 이루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을 나누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 날들과 그 때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빗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욜 3: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말씀은 이때에 모든 민족들을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하여 선지자 스카랴가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슥 14:1-5,9) 아멘! 할렐루야!